

내실 다지기 역점... 21세기 준비

조계종 월주총무원장 97사업계획 발표의미

지난 20일 발표한 월주 조계종총무원장의 새해사업계획은 새로운 사업을 제시하기보다는 개혁 이후 2년여 동안 이뤄온 안정을 바탕으로 종단 내실화에 역점을 두었다.

이같은 방향설정은 월주스님의 발표문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 2년 동안 종단은 사부대중 모두의 화합과 정진으로 수습기간 지속되어온 잘못된 관행과 풍토를 척결하고 커다란 변화와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것이다. 이같은 평가는 교계내외의 전반적인 평가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전법의 해를 선포한 것은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을 통해 불교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고, 승가교육의 기본틀을 다져 안

본말사의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월주스님은 전법을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정신적인 고는 물론 사회체제나 제도가 가져다주는 고통 함께 해결해줘야 한다"고 적극적인 전법관을 밝혔다. 총무원 관련 부처와 포교원에서 세부사항을 마련중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주 총무원장의 의지와 이념을 뒷받침할 작업이 과제로 남아 있다.

21세기 대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팀 및 자문위원회 구성 발표는 불교가 사회적 병리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자신감과 불교의 역할을 강조한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기존의 각종 위원회 활동이 뚜렷한 성과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20일 97년도 종무계획 발표를 통해 전법과 승가교육제도 정착 등 4대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전법의 해를 맞아 새해사업 목표를 △포교행정 체계화 및 포교조직 활성화 △신도등록 활성화 및 전산화 △연수프로그램 개발 △신도입문 및 교육체계를 확립으로 정했다. 특히 금명간 전법의 해 추진위원회를 구성, '전법 5개년 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해 전산화를 실시한다.

신도등록을 통해 사찰신도를 결집하고 사찰, 교구, 지역신도회를 결성해 중앙신도회 출범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법의 해" 지정과 함께 포교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연수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수 실무자들의 대외연수 참여와 자료수집 및 개발을 통해 새로운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해 연수를 통한 포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포교원 새해사업

신도등록 전산화·국제포교활동 장려 전법도량 지정등 포교조직 대폭 강화

포교원이 역점을 두는 것은 포교행정 체계화 및 포교조직 활성화 추진이다. 본·말사 포교규정 제정, 전법도량 지정 등 각종 포교활동을 법제화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포교원과 본·말사 포교국을 연결하는 포교행정 체계를 일원화한다. 또 전법도량으로 지정된 사찰에는 불교양대학을 비롯 신도교육기관을 설치토록하고 정기적으로 포교의 현황 및 분석을 실시해 신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포교조직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종단의 신도교육체계 정립과 재가신도의 일관된 신행생활지도를 위해 지난해 펴낸 <불교입문서>에 이어 <불교교리서>를 발간한다. 신도입문지침서는 우선 모범적인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찰을 선정, 배포할 계획이다.

또 포교원에 등록된 교양대학 가운데 학제와 교수진, 기타 필요요건을 갖춘 불교대학을 대상으로 종단인가제를 실시한다.

또한 신도등록을 활성화하고 업무효율을

김종근 기자

전법의 해 지침 제시... 구체적 내용 미흡 신도회 초파일前 결성 시사 '의지 재다짐'

정적인 종단운영과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승려양성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곧바로 포교와 불자들의 조직화로 이어지게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전법의 해와 관련 △사찰의 포교의무화 △법사단 운영 △불교교양대학 개설추진 △불교지도자 전법대회 △불교인문교육 의무화 등의 사업을 제시했으나 추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불교청소년의 해와 비교해 '전법'이라는 주제가 다소 포괄적이어서 선뜻 개념이 잡히지 않는다는 불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했다. 대부분 지난해 포교원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다. 따라서 각 사찰의 실태에 맞는 전법모형을 개발해내느냐에 성패여부가 달려 있다. 무리하게 행정력에만 의존한다면 자칫 중앙총무기관과

거주지 못하고 유아무어했던 점에 비추어 담원성 강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주문이 일반적이다.

이번 회견에서는 또 중앙신도회 결성과 관련해 초파일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월주스님은 "봉축 전까지 종단 인력의 명실상부한 재가신도 대표기구를 구성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종단에서 만들어 이후 3년 정도 뒷받침하는 것은 승단의 할 일"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는 기업인 송모씨의 회장내정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신도회에 대한 지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종단의 간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둔 신도단체 구성 움직임과 관련해 이후 조계종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성운 기자

시론

부처님의 대화법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는 경전 중 으뜸인 <천수경>이 단연 으뜸일 것이다. 스님이든 세속인이든 구별없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천수경>을 가장 많이 독송한다.

이 <천수경>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말에 관한 진언이다. 정구업집인(淨口業眞言),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부터 독송토록 체계화해 있다. 적극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입을 깨끗이 하겠습니까'라는 서약이다. 욕설이 아닌 깨끗한 말, 내만이 아니라 남도 이롭게 하는 말, 이웃뿐 아니라 세상만물과 화합이 되는 말만을 하겠다는 부처님과의 약속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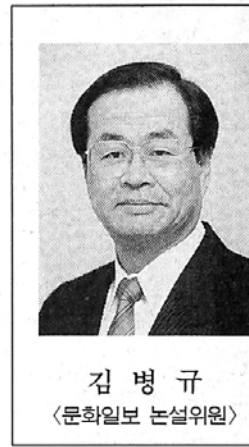
결코 글로써 전달한 적이 없다. 수많은 경전이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형식으로 전개된 것은 대화법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글보다는 말이 의사전달방식으로 더 정교하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대중이 이해하지 못할 때는 수많은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우리가 한번쯤 음미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왜 그토록 많은 대중이 따르게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2천5백여년이 지난 지금도 인류사상 가장 숭고한 진리로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점이다. 무엇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욕심이 없는 깨끗함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또 자신의 주의주장에 따라 오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충분히 이해시켰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근기, 능력, 수준에 따라 대화, 즉 가르침의 방식과 비유를 달리 했다. '...을 해야 하느니라'가 아니라 '시냇물로 하자면 대화'를 통한 이해와 설득이다.

"입을 깨끗이 하겠습니까"

<천수경>에선 말이(妄語·거짓말), 기어(綺語·발림말), 양설(兩舌·이간질하는 말), 악구(惡口·너를罵는 말)를 참회토록 가르치고 있다. 부처님이 구업의 죄로써 이같이 네가지를 적시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또 자주 지을 가능성이 큰 죄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같이 네가지를 구업의 죄만을 의식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다. 소극적인 인간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물론 이같은 구업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걸음 더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신의 이인만을 위한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제가 필요하다. 때로는 회색을 각오하고 해야 할 말은 반드시 해야 한다. 부처님이 정구업집언을 <천수경>의 첫머리에 두고 가르치고자 했던 참된 뜻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대화성공의 요체는 진실이다. 자신만을 내세우고 뽐내며 남을 멸시하는 말과 행동으로 안된다. 존경을 받기는 커녕 상대방을 설복시킬 수도 없다. 이번 노동법 개정 이후 벗어난 파업사태에서 이른바 네티아부대가 동참하고 안기부법에 대한 원천무효가 외쳐진 배경엔 현 집권세력의 오만스러움에 대한 반감도 짙게 깔려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의심스런 배후세력이 개재된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근로자들의 '상급단체 복수노조 3년유예' 반발에서 촉발된 파업사태에 왜 원천무효주장이 나왔는지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



김 병 규 <문화일보 논설위원>

진실한 말에 힘이 있다

흔히말이 잘났다는 우월심은 절대 버려야 한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겸허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런 삶에서 용화와 재물이 생성되고 복이 온다. 말을 할 때, 기교를 부릴 필요도 없다. 진실된 말엔 힘이 들어있는 법이다. 말이 서글고 어눌한 사람에게도 추종세력이 모여드는 것은 그의 말속엔 힘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 힘이란 실질을 보장하는 역동성이다. 일상생활에선 가능한 한 말을 아껴야 한다. 하지만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을 염려가 있다. 사심, 욕심이 없는 말, 이상인상을 소멸시키고 나누는 대화만이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강 건 기 <전북대 교수·철학>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시며 제자들은 1천리 떨어진 죽림정사에 있었다. 하루는 사리불이 목련존자를 찾아가니 평상시와는 다르게 밝고 평안했다. 그래서 사리불이 목련존자에게 물으니 '부처님과 법당을 나눠서 그런가 보다'고 대답해 깜짝 놀랐다.

우리의 눈과 귀가 청정하면 부처님과 언제라도 법당을 나눌 수 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란 불심이 충만한 법계이며 온 우주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청정하지 못하다. 알고보면 보고도 못보고 들어도 못듣는 것이 우리 일상의 모습이다. 만약 말 한마디, 생각한번 잘못되면 우리 마음, 즉 이마아래에 쌓여 작용을 계속해 버린다. 청정한 바탕을 등지고 살고 있는 것에서 수행의 완성은 없다.

업 보따리로 쌓인 마음 보따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청정해질 수 없다. 마음보따리에 얽혀진 것을 풀어야 한다. 이것이 정화했을 때 그것이 깨침의 경지이다.

참회는 이 순간을 잘못 살아왔고 좋지 않았던 기운을 몰아내는 수행법이다. 오

업 보따리 내려놓자

늘 이전까지를 깨끗이 청산하는 새살림을 살겠다는 마음이다.

참회항목에는 4가지가 있다.

첫째, 이 세상의 어떤 대상을 향해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둘째,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향해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셋째, 다른 사람에게 무시된 것 같은 경우에 강한 반발심

이 일어나는가 아닌가? 넷째,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교의 참회는 사찰(事懺)에서 이참(理懺)까지 가야 완전해진다. 사찰은 우리 마음을 뇌란시키는 분노 원한의 마음을 전부 꺼내 놓고 죽어도 못놓을 업보따리를 내려 놓는 실천적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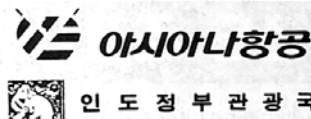
또 이참은 참선을 통해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에 초점을 맞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본래 마음자리에 들어가 실제 우리 마음이 우주같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자신의 바른 삶을 위해 참회하고 청정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 바탕은 우주와 틀이 아닌 일체존재로 밝고 청정한 성품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전북불교대 동계수련회 강연에서>

아시아나 항공 특별 전세기 운항 97년 2월 14일, 2월 21일 (2회)

인도 불교성지 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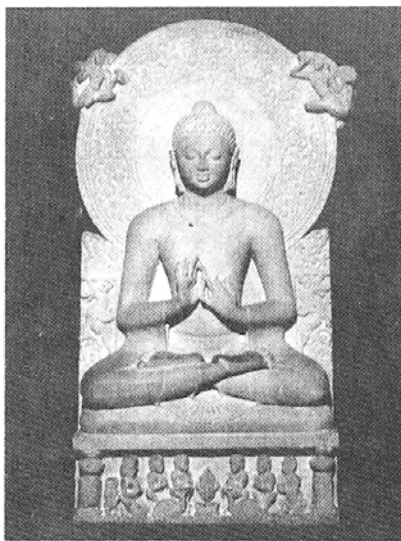
아시아나 항공이 국내 최초로 운항하는 인도 특별 전세기로 저렴하고 편안하게 성지순례를 다녀오십시오

특 전

1. 서울 - 델리 직항으로 빠르고 편안함.
2. 인도 국내선 이용으로 야간기차 이동 없음.
3. 성지지역 최고급 호텔 및 최신티버스 이용으로 안락함.
4. 한식 제공으로 식사문제 해결.
5. 불교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와 안내인이 행사 진행으로 품격 높고, 차질이 없는 순조로운 성지순례 안내.

※연로하신 분에게는 특히 좋은 기회입니다.

저희 불교 성지순례전문 여행사는 항상 불자님의 뜻깊은 성지 순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참금 1차 : 2월14일 - 2월 22일(8박9일) 139만원
2차 : 2월21일 - 3월 1일(8박9일) 148만원

성지순례일정(9일간)

- 제1일 서울 - 델리
- 제2일 델리 - 기원정사
- 제3일 기원정사 - 가비라성 - 룸비니
- 제4일 쿠시나가르 - 바이살리 - 파트나
- 제5일 파트나 - 나란다 - 왕사성 - 부다가야
- 제6일 부다가야 - 니린선하 - 바라나시 - 녹야원
- 제7일 녹야원 - 갠지스강 - 아그라
- 제8일 아그라 - 델리
- 제9일 델리 - 서울

※ 상세한 일정은 별도로 보내드립니다.

▲ 충청권 ▲
예약문의 : (주) 금남관광 (042) 252-7780

혜초여행사 (02) 544-1533

▲ 호남권 ▲
(주) 승광관광여행사 (062) 222-7775